



보살행

수화로 마음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무료 운전교습

청각 장애인 불자 김승호씨

11월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애인 운전교습장. 검은색 점퍼 차림의 한 남자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다소 과격한 손놀림을 계속한다. 이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한 여성은 마치 죽을죄라도 지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따금 손가락을 펴보이기를 반복한다.

못들어 불합격 예사

험상궂은 표정의 주인공은 청각 장애인 김승호(32)씨다. 김씨는 "가르쳐 준대로 하지 않고 왜 마음대로 하느냐"며 화가 잔뜩 났다. 김씨에게 운전교습을 받고 있는 신아영(22)씨 역시 청각장애인.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수화로 의사표현을 한다.

김승호씨가 청각장애인 운전교습을 시작한 것은 올 1월부터다.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이 98년부터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작년부터는 기능교육까지 하게 되면서 이곳의 운전강사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광림사 해성스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조계사 원심회에 나가다 청각장애인들의 단체인 연화복지학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다.

자신도 청각장애인으로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운전강사로 나서게 된 데는 운전면허를 따기까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장애인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김씨는 운전면허를 따는데 무려 3년이 걸렸다. 무엇보다 필기시험이 큰 난관이었다. 3살 때 열병을 앓고 나서 청각장애인이 된 김씨는 지금까지 줄곧 수화만 사용해왔기에, 사물을 언어로 듣고 책으로 읽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운전과 관련한 갖가지 개념들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기능연습도 마찬가지다. 운전강사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어떤 설명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특히 기능시험때 '돌발'에 불이 들어오며 '삐익삐익'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해 차를 멈출 수 없어 '불합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김씨에게 운전교습을 받으려는 청각장애인들은 최근에 부쩍 늘었다. 김씨에게 배운 장애인들의 80%가 합격했다는 것은 웬만한 청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김씨는 필요일부러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청각장애인 불자 김승호(왼쪽)씨가 수화로 교육생에게 운전교습을 하고 있다.

지 교습을 한다. 지금까지만 50여명의 제자(?)를 배출했다. 불교계에서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운전교습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종교에 관계없이 청각장애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주5일 4시간씩 교습

"저는 부처님 가르침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게 운전을 배우면서 불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우한 청년시절을 보내며 불교와 인연을 맺었고 그 인연이라 지금은 이렇게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얼 바라겠습니까. 이 일은 부처님께서 제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김씨는 얼마전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청각 장애인 운전교습 프로그램을 담은 비디오편을 제작하는 데 주인공으로 나섰다. 전국의 청각장애인들이 자신이 운전요령을 설명하는 비디오편을 본다는 생각만 하면 저절로 흥이 난다. 이 비디오편은 이날 중순경 제작돼 무료로 대여된다.

김씨는 교습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불교공부를 한다. 불교 공부든 일상이기도 하지만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제대로 운전을 가르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생활속의 불교

하늘이 조금만 찌푸드 해도 '눈이 울러나' 하며 웃기를 여미는 계절이 되었다. 그런데 어찌자고 노숙자는 갈수록 늘어만 간다. 심지어 출근길 전철 안에는 밤새 추위에 떨던 노숙자들이 길게 누워 종점에 저 종점을 오가며 잠을 청하기도 한다.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편치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자신의 삶도 버거운 형편으로선 별 도리가 없다. 그저 죽어 여러 명은 않아도 될 자리를 내어주는 것 말고는, 정녕 연민의 눈동자로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일 없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사마랑심을 말씀하셨다. 이른바 자(慈)·비(悲)·희(喜)·사(捨)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테면 '만생명들이여, 평안하고 행복하라' 한다면 그것이 곧 '자심(慈心)'이요, 남의 고통을 무심히 바

낙담의 삶은 부처의 길

라보지 않고 빨리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던 곧 '비심(悲心)'이다.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면 '희(喜)요, 일체의 편견과 분별을 여의면 사(捨)다. 고로 '자·비·희·사'는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삶이다. 모를지기 불자라면 자비회사의 정신을 삶의 으뜸원리로 삼아야 한다. 모든 존재의 존재 방식은 서로 의지하고(相依) 서로 돕는(相輔)데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없다. 오히려 뒤편 세상 탓이고 잘못만 제 탓이다.

그러나 철저히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루었다고 믿는 부나 명예, 권력 따위도 사실은 상대가 있을으로써, 상대의 협조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엔 어떤 한계가

위빠사나·아반타 수련안내

"자신을 찾는 여행을 함께 할 벗님을 초대합니다."

부처님이 수행하셨던 방법 그대로의 위빠사나와 禪공학이라고 불리는 아반타 두 개의 방법으로 수행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12월 8일 오후 4시부터 12월 14일 점심까지 (6박 7일)
참가비	20만원
교육내용	1. 위빠사나 2. 아반타 코스 1부
준비물	담뱃를 체득하겠다는 서원 간편한 복장(따뜻한 옷) 개인세면도구 필기도구

동참하실 분은 종무소에 미리 접수와 온라인 인금을 바랍니다.

● 국민은행 : 277-25-0000-906 (예금주 - 봉인사)
● 연락처 : 031-574-5585 / 528-5585

봉인사 종무소

봉인사 한길정진원 합장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러가리,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 단백질과 마그네슘, 셀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제'가 물이 고이는 경우 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

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 단백질과 마그네슘, 셀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제'가 물이 고이는 경우 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

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 단백질과 마그네슘, 셀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제'가 물이 고이는 경우 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불립했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희망과 포부를 나래에 실어 무지개 핀 하늘에 꿈을 드리우는 검입니다.

검을 주고 받는 마음이란...

- 부모님께 바치는 검의 의미: 넓고 깊은 자애로운 마음입니다! 악한 정령 격퇴하여 무병장수하시어!
- 형제에게 드리는 검의 의미: 우애의 정 길이 깊어지고 즐거운 마음 자르소서!
- 친구에게 전하는 검의 의미: 벗이여! 우리의 우정 변화는 마음 자르소서!
- 자손에게 내리는 검의 의미: 모든 풍파에도 좌절하지 말고 악한 유혹을 자르며 굳건히 제자리를 지켜 나가소서!
- 세자가 스승에게 드리는 검의 의미: 항상 의롭게 맞서는 정신이 보존하시고 악해하는 마음 자르소서!
- 스승이 제자에게 내리는 검의 의미: 온전한 마음 자르고 밝은 지혜로 쓴 세상에 유망하시어!

삼정도도검
본사·공방: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99-1
TEL: (032) 677-0085 (대) (032) 674-0081 ~ 3
FAX: (032) 677-0084

신행칼럼

12월 6일(수)

■ 중양승가대학교 총장취임법회 = 중양승가대학교는 오전 11시 정진관 대강당에서 제 3대 총장 종범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02)925-5508

■ 고려대장경 전산화본 발표 및 봉정식 =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오후 2시 서울립극장신경리장에서 고려대장경 전산화본 발표 및 봉정식을 봉행한다. 또 9일부터 9일까지 동국대에서 '불전전산화와 정보혁명 시대'의 불교 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02)797-0585

■ 정명스님 연꽃전 = 정명스님은 12일까지 서울 백상기념관에서 '연꽃전'을 가진다. 스님은 87년부터 종으로 연꽃을 만들어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표현하고 있다. (02)388-0108

12월 7일(목)

■ 능월 불교회 심존불 탕화 봉안회 = 능월 불교회는 창립 60돌을 맞아 오후 7시 분관 근관관에서 동국대 현각스님을 증명법사로 삼존불 탕화 봉행법회를 개최한다. (02)397-5988

■ 국립의료원법우회 창립 11주년 기념법회 = 국립의료원법우회는 오후 6시 국립의료원 간오대학 9층 강당에서 창립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2260-7328 임종호

■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취임법회 = 영천 은해사는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승가대학원장 해남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054)335-3318

■ 봉림사 백고법회 = 창원법회사는 오전 10시 30분 삼양승가대교주 종진스님을 법사로 백고법회를 봉행한다. (055)267-6336

12월 8일(금)

■ 국립의료원법우회 창립 11주년 기념법회 = 국립의료원법우회는 오후 6시 국립의료원 간오대학 9층 강당에서 창립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2260-7328 임종호

■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취임법회 = 영천 은해사는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승가대학원장 해남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054)335-3318

■ 봉림사 백고법회 = 창원법회사는 오전 10시 30분 삼양승가대교주 종진스님을 법사로 백고법회를 봉행한다. (055)267-6336

■ 파라미타 전국지도대회 = 파라미타 청소년협의회는 오후 4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2층에서 '파라미타 전국지도대회'를 개최한다. (02)723-6165

■ 전북불교대학의 밤 및 동문 작품전 = 전북불교대학은 오후 3시 전북대학교 녹지원에서 전북불교대학의 밤 및 동문 작품전을 개최한다. (063)226-7878

12월 10일(일)

■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 교사의 밤 =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는 오후 3시 부산시청 동복홀에서 '교사의 밤' 행사를 가진다. (051)853-5486 이선경

■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 = 한국불교기자협회는 11일 오후 6시30분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제4회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02)722-4162

주제가 있는 법문

"뭔가 새롭게 해야겠다" 발심하고 실천합시다

"혹한의 추위가 없으면 저 눈속에 핀 매화가 어찌 사람의 시선을 끌수 있는 향기를 얻겠는가" 설중매(雪中梅)가 아름다움 꽃과 향기를 얻기 위해서 혹한의 겨울을 견뎌내듯이 우리 중생도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것을 절집에서는 발심(發心)한다고 합니다. 뭔가 새롭게 해야겠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된다 해서 새롭게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입니다. 발심하기가 사자 어렵다고 했어요. 마음을 내고 각오만 가지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더 편안하며 안락함을 전부 이룰 수 있어요. 그렇게 발심을 했건만 아직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처음의 발심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겨울이 몹시 힘들 겁니다. 추위도 추위지만 구조조정



혜운스님
평촌 보림사 주지

것도 보시행입니다. 보시는 너와 나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사실 보시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지극히 짧습니다. 보시를 하는 시간은 참나지만 그 보시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공덕은 무한히 깊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마음의 저 꺼기를 다 없애야 하지만 보시후 생기는 기쁨은 번뇌가 아니라 공덕입니다. 그래서 심년, 이십년 뒤에, 임종직전에도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이것이 보시의 공덕입니다. 보시라는게 배울고 어떤 결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해 물질을 받는게 아니라 마음도 받는 것이고, 또 그것이 무한히 오래가는 것이지요.

누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세요, 이유따지지 말고, 그렇게 주다보면 받는 사람도 미안한 마음이 들게돼요. 미안한 생각이 들어 나도 남에게 뭔가를 베풀어야 하게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마음에 잠들어있던 불성이 눈을 뜹니다. 다른 의미로 보면 보시라는 것은 간담심, 즉 욕심을 버리는 것이예요. 자구 욕심을 버려다 보면 과거세월에 지은 가난한 업이 녹아집니다. 반공업이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보충무진이라는 것은 거들거들 중첩되고 중첩돼 있고, 겹치고 거들되는 것이 끊임이 없고 그러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행복이나 고통도 자기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를 표현하는 방법중 첫째가 보시입니다. 보시를 통해서 서로서도 억눌리고 움츠러 들고 의롭고 두려운 마음을 없앨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재보시지요. 또 법보시가 권장되고 있는데 꼭 법을 나눠주는 일뿐 아니라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무의식, 즉 두렵고 무서워 할때 그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없애주는

보시후 생기는 기쁨

번뇌 아니라 공덕심

에 따른 실업의 고통도 심할 것이고,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만 사는데, 다른 이들은 행복인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을까 하는데 실제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이웃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의 고(苦)를 가지고 삽니다.

회업에서는 이 세계를 중중무중(重重無重)의 세계라 해요. 중중무진이라는 것은 거들거들 중첩되고 중첩돼 있고, 겹치고 거들되는 것이 끊임이 없고 그러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행복이나 고통도 자기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를 표현하는 방법중 첫째가 보시입니다. 보시를 통해서 서로서도 억눌리고 움츠러 들고 의롭고 두려운 마음을 없앨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재보시지요. 또 법보시가 권장되고 있는데 꼭 법을 나눠주는 일뿐 아니라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무의식, 즉 두렵고 무서워 할때 그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없애주는